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성과와 과제

The Results and Problems of the Synthetic Study on Samgukyusa

저자 (Authors)	박진태 Park Jin-Tae
출처 (Source)	인문과학연구 16 , 1997.12, 1-13(13 pages) Journal of the humanities 16 , 1997.12, 1-13(13 pages)
발행처 (Publisher)	대구대학교 인문교양교육연구소 Liberal Arts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632502
APA Style	박진태 (1997).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성과와 과제. 인문과학연구, 16, 1-13
이용정보 (Accessed)	삼성현역 사문화관 183.106.106.*** 2021/09/03 16:39 (KST)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성과와 과제

박진태*

목 차

- | | |
|-------------------|-------------------------|
| I.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 | III. 종합적 연구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 |
| II. 종합적 연구의 전개 과정 | |

I. 종합적 연구의 필요성

일연(1206; 희종 2년~1289; 충렬왕 15년)이 1280년 경¹⁾에 편찬한 삼국유사는 김부식이 1145년(인종 23년)에 편찬한 삼국사기에서 누락된 내용, 이를테면 불교적 사실을 주종으로 하고 고조선에서 발원하는 삼국 이전의 역사와 異說을 부가해서 수록하고 있다. 그러나 삼국사기가 유교사관에 입각한 紀傳體 正史라면 삼국유사는 불교사관에 의한 編年體 野史인 점에서 고대사를 기록한 사서로 쌍벽을 이루면서도 양자는 상호보완적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대립적인 관계이다. 삼국사기가 유교적 합리주의와 인본주의에 의해 공자가 일찍이 주창한 述而不作의 태도를 고수한 데 반해 삼국유사는 불교적 초월주의 내지는 신화적·종교적 세계관에 의해 세속계(인간)와 신성계(神佛)가 접합한 사건을 중시했다. 그리고 불교적인 신비체험담의 古形(proto-type)이나 原型(arche-type)으로서의 토착적이고 巫文化的인 神異譚의 가치를 인정하여 紀異篇에 집대성했다.

*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교수

1) 삼국유사의 편찬 시기에 대해선 운문사 시기설과 인각사 시기설 두 가지 주장이 있다. 전자는 김태영(『일연의 생애와 사상』,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1982, III-5쪽)에 의해, 후자는 김상현(『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 《한국사연구》 제38호, 1982, 2~3쪽)에 의해 주장되었는데, 전자에 의하면 1277년(72세, 충렬왕 3년)이, 후자에 의하면 1284년(79세)이 편찬 시기의 기점이 된다. 이처럼 정확한 편찬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체로 1280년 전후로 보아 무방하다.

그리하여 삼국유사의 내용과 체제 및 문헌적 성격을 역사서²⁾, 불교사서 내지 불교문화사서³⁾, 설화집⁴⁾, 민족지⁵⁾로 규정하고 연구하거나, 향가나 이두 연구의 자료집으로 활용하기도 하였지만, 고대 사회의 역사, 종교, 문학, 예술, 풍속, 언어 등과 같은 다기다양한 事象들이 기록되어 있는 다층성 내지 복합성이 다음과 같이 중시되기도 하였다.

“삼국유사는 신화학·국문학·민속학·불교학 내지 역사학의 聖典이다.”⁶⁾

“삼국유사는 역사·문학·철학·종교·민속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취급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 전모를 밝히는 일은 불가능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⁷⁾

“삼국유사는 私撰으로 문헌자료를 비롯하여 금석문, 고문서, 민간설화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수록했다는 점에서 한국 고대의 문화 전반을 폭넓게 담고 있는 民族誌라 할 수 있으며, 역사서이며 문학서이고, 종교사이며 문화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⁸⁾

이처럼 삼국유사에 대한 다각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또 실천에 옮겨지기도 했다.

따라서 삼국유사에 대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전체상 내지 총체성이 구명되어야 온전해질 수 있다는 인식 위에 분야별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종합적 검토와 개인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동 연구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시도되었으며, 그 성

2)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 《진단학보》 제36집, 진단학회, 1973.

김철준, 「고려 중기의 문화의식과 사학의 성격」, 《한국사연구》 제9호, 한국사연구회, 1973.

김태영, 「일연의 역사의식」, 《경희사학》 제5호, 1974.

3)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제와 그 성격」, 《동국대학교논문집》 제13집, 1974.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 《한국사연구》 제20호, 한국사연구회, 1978.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 《한국사연구》 제38호, 1982.

홍윤식, 『삼국유사와 한국고대문화』, 원광대학교출판부, 1985.

4) 장덕순, 「삼국유사의 설화문학적 가치」, 『삼국유사와 문학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조동일, 「삼국유사설화 연구사와 그 문제점」, 《한국사연구》 제38호, 1982.

황패강, 「삼국유사와 불교설화」,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 1982)

송효섭, 『삼국유사설화와 기호학』, 일조각, 1990.

5) 김택규, 「삼국유사의 사회·민속지적 가치」, 『한국사회와 사상』, 1984. 『삼국유사연구논문선집』, 백산자료원, 1986에 재수록.

6)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중앙출판, 1982)의 서문.

7) 민족문화연구소 편, 『삼국유사연구 상』(영남대학교출판부, 1983)의 머리말.

8)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1987)의 간행사.

과와 문제점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그 극복과 해결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II. 종합적 연구의 전개 과정

삼국유사는 최남선이 順庵 安鼎福이 소장했던 이른바 順庵手澤本(1512; 중종 壬申年 발간)과 권 3·4·5만 잔존한 조선광문회본(조선 초기 간행)을 校勘하여 「해제」와 함께 《啓明》 제18호(계명구락부, 1927.3)에 소개한 이래⁹⁾ 국사학·불교학·신화학·국문학·국어학·고고학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자료집으로 활용하거나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문헌적 성격으로 인해 단면적이고 개별적인 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종합적인 연구나 공동 연구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1973년에 비로소 震檀學會에서 한국고전연구 심포지움의 첫 번째 주제로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¹⁰⁾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閔泳珪가 「일연의 禪佛敎」를, 김열규가 「삼국유사 소개 신화의 일고찰」를, 이기백이 「삼국유사의 史學史的 意義」를 발표한 조출한 학술대회였지만, 불교학·신화학·국사학의 입장에서 편찬자의 불교사상, 건국신화의 탄생 主旨(motif), 史料集的 가치 등과 같은 핵심적인 문제를 다룸으로써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단초를 마련했다.

그후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에서 신라문화제 행사의 일환으로 1980년에 “삼국유사의 신연구”를 주제로 제1회 학술발표회를 개최했는데¹¹⁾, 그때 발표된 논문은 다음과 같다.

- ① 황수영, 삼국유사와 불교미술(불교학)
- ② 김정기, 황룡사지 발굴과 삼국유사의 기록(불교학)
- ③ 정영호, 삼국유사 고고학(고고학)
- ④ 이은창, 신라 고분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고고학)
- ⑤ 이종욱, 사로국과 진한의 정치적 성격의 변화(국사학)
- ⑥ 홍윤식, 삼국유사와 불교의례(불교학)
- ⑦ 김영태, 삼국유사 소전의 관음사상(불교학)
- ⑧ 안계현, 삼국유사와 불교종파(불교학)

9) 일본에선 1904년 동경제대에서 임진왜란 때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 中宗壬申本인 德川本과 神田本을 저본으로하여 교정하고 頭註를 붙여 史誌叢書의 하나로 발간했다. 불교사학연구소 편, 『증보삼국유사연구논저목록』, 중앙승가대학, 1995, 16쪽 참조.

10) 진단학회 편, 《진단학보》 제36집. 진단학회 편, 『한국고전 심포지움(I)』, 일조각, 1980에 재 수록.

11) 이때의 논문집이 1991년에 서경문화사에서 출간됐다.

- ⑨ 최철, 중론 형성과 그 기능(언론학)
- ⑩ 김열규, 삼국유사의 신화론적 문제점(신화학)
- ① 윤서석, 신라시대 음식의 연구(민속학)
- ②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 연구의 문제와 방향(국문학)

국사학, 불교학, 신화학 이외에도 고고학, 국문학, 민속학, 언론학 측면의 논문들이 발표되어 첫 번째의 종합적 고찰보다 훨씬 다각적인 접근이 시도되었다.

그런데 이때 발표된 논문 가운데 이은창, 이종욱, 조동일 세 사람의 논문을 제외한 9편이 동북아세아연구회에서 발간한 『삼국유사의 연구』(중앙출판주식회사, 1982)에 재수록되었는데,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수록된 21편의 논문들은 일본의 《아시아公論》에 24회에 걸쳐 연재된 것들이다.

신라문화제의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을 제외한 나머지 12편의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국사학)
- ② 井上秀雄, 삼국유사와 삼국사기(국사학)
- ③ 장주근, 삼국유사의 무속 기록의 고찰(민속학)
- ④ 김현룡, 주몽탄생설화의 기술 비교연구(국문학)
- ⑤ 황패강, 삼국유사와 불교설화(국문학)
- ⑥ 홍윤식, 삼국유사와 塔像(불교학)
- ⑦ 홍윤식, 삼국유사와 밀교(불교학)
- ⑧ 김영태, 만파식적설화고(국문학)
- ⑨ 김영태, 삼국유사 소전 불교용어에 대하여(불교학)
- ⑩ 이두현, 의상대사와 선묘설화(민속학)
- ① 김동욱, 삼국유사 표기체계에 대하여(국어학)
- ② 이을환, 삼국유사에 나타난 언어의식 연구-언어주술을 중심으로-(국어학)

장주근, 이두현같은 민속학자와 이을환같은 국어학자가 새롭게 참여하는 등 종전에 비해 논의의 폭과 깊이가 더해졌다.

그러나 위에서 검토한 세 경우 모두 학문 분야별로 개인적 차원에서 연구된 성과물을 학술대회에서 발표하거나, 학회 활동의 일환으로 회원의 논문을 선발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한 것들이어서 공동 작업에 의한 종합적 연구와는 거리가 멀었는데, 그같은 획

기적인 사업은 마침내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에 의해서 시도되었다.

일본에서 三品彰英의 주재 아래 1957년에 ‘삼국유사연구회’를 조직하여 윤독회를 가진 결과 『삼국유사 고증』상권(王曆篇)과 하권(紀異篇)을 각각 1975년과 1979년에 발간한 데서 자극을 받아 1978년 9월에서 1980년 4월까지 41차에 걸쳐 윤독회를 가지며 字句의 해석, 내용과 서술의 문제점 등을 검토하고, 한편으론 麟角寺, 桃李寺, 感恩寺址, 문무왕릉 등지를 현지답사한 다음 역사, 문학, 종교, 철학, 민속 등 여러 학문 분야에서 본격적인 연구를 실시하여 발표회를 가졌는데, 다른 대학 연구자도 참여시켰으며, 1982년 들어 그때까지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할 때는 지역성을 탈피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범위를 넓혀 문학적, 역사적, 문헌적 연구물을 요청해서 보완하여 『삼국유사연구 상』(영남대학교출판부, 1983.7)을 출간했다.¹²⁾

이처럼 삼국유사를 연구소 차원에서 공동 연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원전 검토와 현지답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문 영역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연구하고, 연구 결과를 검증받기 위해 다른 대학 교수도 발표회에 동참시켰으며, 자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는 학계의 지원을 받아 종합적 연구의 균형을 맞추려 한 사실은 삼국유사에 대한 종합적 연구의 典範으로 높이 평가되어 마땅하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다짐과는 다르게 연구물이 상권으로 머물고 말아 아쉬움을 남겼다.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이재호,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국사학, 부산대 사학과)
- ② 문경현, 삼국유사 소재 미추왕고(국사학, 경북대 사학과)
- ③ 홍순창, 금관국의 世系에 대하여(국사학, 대구대 역사교육과)
- ④ 김윤곤, 여대의 운문사와 밀양·청도지방(국사학, 영대 국사학과)
- ⑤ 조수학, ‘문호왕 법민’조 巨屍兆 연구(민속학, 영대 한문교육과)
- ⑥ 김열규, ‘낙산이성’과 그 신비체험의 서술구조(신화학, 서강대 국문학과)
- ⑦ 조동일, 삼국유사 불교설화와 송고하고 비속한 삶(국문학, 영대 국문학과)
- ⑧ 김승찬, 도술가의 밀교적 고찰(국문학, 부산대 국문학과)
- ⑨ 권재선, 우적가 어석고(대구대 국어학과)
- ⑩ 이봉린, 삼국유사의 상징성 연구 -水상징의 해석학적 시론-(국문학, 영대 국문학과)
- ⑪ 홍재휴, 사녀시의 隻句攷(국문학, 효성여대 국문학과)

12) 머리말 참조.

- ② 최철, 삼국유사 소재 향가 관련 기록의 검토(국문학, 연세대 국문학과)
- ③ 김주환,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국문학, 영대 국문학과)
- ④ 유탁일, 삼국유사의 문헌 변화 양상과 변인(서지학, 부산대 국어교육과)
- ⑤ 이은창, 삼국유사의 고고학적 연구 -단군신화의 고고학적 고찰을 중심으로-
(고고학, 효성여대 국사교육과)

이같이 국사학이 4편, 국문학이 8편, 국어학이 1편, 서지학이 1편, 고고학이 1편으로 국사학과 국문학에 편중되어 종합적 연구라는 측면에선 미흡했다.

정신문화연구원에서 1986년 12월 1일~3일에 실시한 제4회 국제학술회의에서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를 주제로 삼은 목적은 삼국유사가 민족지, 역사서, 문학서, 종교사, 문화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총정리하되, 아직 연구되지 않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한편 한국의 고대 문화를 국제적인 관점으로 승화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라고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1987)의 간행사에서 밝혔듯이 첫째는 분야별 개별적 연구의 총정리이고, 둘째는 미해결된 문제점의 발견이며, 셋째는 국제적인 시야로의 확대였던 것이다. 그리하여 국내학자 11명, 일본학자 4명, 중국학자 1명이 참여한 국제학술회였으며, 논문의 내용도 국사학, 불교학, 국문학, 신화학, 국어학, 민속학, 서지학 등 삼국유사와 관련된 학문 영역을 대부분 포괄했다. 그러나 아래의 목차를 통해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분야별로 총정리했다고 볼 수 없으며, 문제점을 충분히 부각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도 의문스럽다.

- ① 정구복,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고찰(국사학)
- ② 김상현, 삼국유사의 서지학적 고찰(서지학)
- ③ 木下禮仁, 제상전승고(민속학)
- ④ 이기동, 삼국유사에 의한 신라사 연구와 서술(국사학)
- ⑤ 井上秀雄, 삼국유사와 일본관계(국사학)
- ⑥ 최병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한국고대불교사 인식(불교학)
- ⑦ 田村圓澄, 삼국유사와 불교(불교학)
- ⑧ 진홍섭, 삼국유사에 나타난 탑상 -황룡사 탑상을 중심으로-(불교학)
- ⑨ 宮本長二郎, 삼국유사와 한·일 건축 교류(건축학)
- ⑩ 김동현, 삼국유사와 황룡사지(건축학)
- ① 강인구, 신라 왕릉의 재검토(3) -삼국유사의 기사를 중심으로-(고고학)
- ② 조동일, 삼국유사 설화와 구전설화의 관련 양상(국문학)

- ③ 임명덕, 삼국유사와 중국 정사 중의 제왕신화 -탄생 전후의 기적과 징조를 중심으로-(신화학, 중국 학자)
- ④ 황패강, 삼국유사와 향가 연구(국문학)
- ⑤ 안병희, 국어사 자료로서의 삼국유사 -향가의 해독과 관련하여- (국어학)
- ⑥ 관야유신, 한국과 일본의 차자표기에 대하여(문자학)
- ⑦ 김택규, 삼국유사의 민속체계(민속학)

경주시 신라문화선양회가 1980년의 제1회 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에서 “삼국유사의 신연구”를 실시한 데 이어서 “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를 1989년 12월 12·13일 양일간 개최된 제11회 학술회의의 주제로 설정한 이유는 “삼국유사에 보이는 사료를 기초로 하여 신라의 판도에서 확인·발견되는 자료의 관련성을 통하여 보다 실증적으로 신라문화를 이해하려는 의도”¹³⁾이기 때문에 고대사, 고고학, 불교학, 음악, 신화 전설 등의 전공자들을 참여시켰다고 했는데, 이때 발표된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 ① 김영만, 영일 냉수리 신라비의 “癸未年”에 대하여(국사학)
- ② 최광식, 영일 냉수리 신라비의 釋文과 내용 분석(국사학)
- ③ 김창호, 고신라 금석문에 보이는 城村名(국사학)
- ④ 이은창, 신라신화의 고고학적 연구(1) -삼국유사 혁거세신화와 김알지신화를 중심으로- (고고학)
- ⑤ 이종욱, 신라 고분의 주인공(고고학)
- ⑥ 문경현, 원효의 수도처에 대하여(불교학)
- ⑦ 이진수, 삼국유사에 보이는 화랑의 신체사상과 그 수련에 대하여(국사학)
- ⑧ 장사훈, 신라시대 불교유적에 나타난 악기(불교예술)
- ⑨ 임재해, 손순매아설화의 전승현장과 전승상황(국문학)
- ⑩ 김영숙, 만파식적설화의 전승과 시적 변모양상 -조선시대 詠史樂府를 중심으로-(국문학)
- ⑪ 김승호, 聖所만들기와 설화의 구조 -유사 소재 창사연기설화를 중심으로- (국문학)
- ⑫ 김정숙, 건국신화 연구와 외국이론의 도입(국문학)
- ⑬ *김상현, 신라 소지왕대의 僧元日과 안국사(불교학)

13) 신라문화선양회 편, 『삼국유사의 현장론적 연구』(「신라문화제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11집), 서경문화사, 1992, 391쪽.

④ *문명대, 삼국유사 南白月二聖條와 법상종 미술(불교예술)

마지막 두 편은 발표만 되고, 기간 내에 논문으로 완성시키지 못해 논문집 제11집에서 누락되었는데, 이것은 삼국유사에 대한 현장적 연구가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작업이라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첫머리 논문 3편은 삼국유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포함시킨 것은 그 당시 영일의 냉수리에서 발견된 신라비가 학계의 쟁점이 되었던 데 연유하겠지만, “신라 고분의 주인공”, “원효의 수도처에 대하여”, “신라 시대 불교 유적에 나타난 악기” 등과 함께 지나치게 현장적 연구를 의식한 나머지 무리하게 포함시킨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헌의 기록과 유물 유적이거나 전승 현장과 관련시키는 관점에서 삼국유사를 연구하려는 시도는 참신하고 획기적인 방법론적 전환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고고학적 발굴이나 구비문학의 현장론적 연구 방법의 영향에 의한 변화로 보인다.

한편 효성여대에서 ‘삼국유사연구회’를 조직하여 삼국유사의 권1·2·3을 對校하여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2·3권(1985·86·87)에 발표한 사실도 빠뜨릴 수 없다.

한편 자료집 발간으로는 백산자료원에서 24명 학자의 31편 논문을 엮어 간행한 『삼국유사연구논문선(1)』이 1986년에 나왔다. 이 책은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를 표방하지 않았지만, 대표적인 논문들을 선발하여 연대순으로 배열한 것이어서 연구사를 점검한 측면이 있다. 참고 삼아 목차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최남선, 삼국유사 해제(국사학)
- 손진태, 삼국유사의 사회사적 고찰(역사민속학)
- 양기백, 삼국유사 소재 서명 색인(서지학)
- 이기백, 삼국유사의 사학사적 의의(국사학)
- 이기백, 삼국유사 기이편의 고찰(국사학)
- 이기백,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국사학)
- 이남영, 삼국유사와 승 일연과의 관계 고찰(불교학)
- 김태영, 삼국유사에 보이는 일연의 역사인식에 대하여(국사학)
- 김영태, 삼국유사의 체재와 그 성격(국사학)
- 소재영, 삼국유사에 비친 일연의 설화의식(국문학)
- 김상현, 삼국유사에 나타난 일연의 불교사관(국사학)
- 김상현, 삼국유사의 간행과 유통(서지학)
- 김상현, 삼국유사 왕력편의 검토(국사학)

- 채상식, 보각국존 일연에 대한 연구(불교학)
 고익진, 삼국유사 찬술고(국사학)
 김열규, 삼국유사를 왜 읽는가(신화학)
 김열규, 삼국유사의 신화론적인 문제점(신화학)
 민영규, 일연의 陳尊宿(불교학)
 민영규, 선불교(불교학)
 이동하, 삼국유사 소재의 불교설화에 대한 일고찰(국문학)
 김주한, 삼국유사 소재 ‘찬’에 대하여(국문학)
 유탁일, 삼국유사의 문헌변화 양상과 변인(서지학)
 정영호, 삼국유사 고고학(고고학)
 이재호, 삼국유사에 나타난 민족자주의식(국사학)
 김정기, 황룡사지 발굴과 삼국유사의 기록(고고학)
 황수영, 삼국유사와 불교미술(불교학)
 김태규, 삼국유사의 사회·민족지적 가치(민속학)
 인권환, 일연의 찬시(국문학)
 홍윤식, 삼국유사와 불교의례(불교학)
 이재운, 삼국유사의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국문학)
 박승길, 삼국유사에 나타나는 카리스마의 이해와 일연의 역사인식(국사학)

국사학, 불교학, 신화학, 국문학, 민속학, 고고학, 서지학의 대표적인 논문들이 수록되었지만, 향가 관련 국어학과 국문학의 논문이 빠졌는데, 이것은 ‘일연의 설화의식’, ‘시조설화에 나타난 일연의 역사인식’, ‘일연의 찬시’와 같은 제목이 시사하듯이 삼국유사의 내용 자체보다는 일연과 삼국유사의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논문이 선정된 데 기인된 것 같다.

이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중앙승가대학에서 일연이나 삼국유사와 관련된 논문 및 자료를 해제(28편), 일연의 생애와 사상(29편), 자료와 논저 목록(8편), 사학사적 연구(26편/19편), 신라 사회(21편), 신라사(13편), 고대국가(21편), 신라불교(18편/18편), 불교사상(17편), 고대문화(25편/23편), 화랑(26편/16편), 사회·민속(22편), 고고·미술사(29편)로 총 359편을 13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17책으로 간행한 『일연과 삼국유사』(민족문화출판사, 1996)가 나와 기왕의 대표적인 연구물들이 대대적으로 집대성됐다.

한편으로는 삼국유사를 연구한 논저의 목록도 작성되었으니, 金相鉉(한국사연구회, 《한국사연구》 제38호, 1982.9)과 姜仁求(정신문화연구원,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1987) 및 불교사학연구회(『증보 삼국유사연구논저목록』, 중앙승가대학, 1995)에 의해 정리된 바 있다. 강인구는 일본과 서양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해제(58), 역사 일반(210), 고고·미술(50), 민속·신화(271), 사상·종교(150), 어·문학(1015)으로 여섯 항목으로 나누어 1754편의 논저를 분류하였으며, 불교사학연구소는 해제(48), 역사(223), 화랑(137), 사상·종교(150), 사회·민속(53), 고고·미술·음악(55), 신화·설화(184), 단군신화(122), 문학 일반(191), 이두·향가(802), 처용가(101), 어학(119)로 나누어 2186편의 논저 제목을 소개한 다음 다시 95편을 추가시켰으니, 도합 2281편의 논저의 목록을 작성한 셈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삼국유사가 다각적으로 연구된 사실이 통계적으로 규명되었는데, 불교사학연구소의 경우 역사적 연구에서 화랑 연구를, 신화·설화 연구에서 단군신화를, 이두·향가 연구에서 처용가 연구를 각각 분리시킨 데서 드러나듯이 삼국유사 연구가 특정한 제도나 작품에 집중된 현상을 간파할 수 있다. 또 역사적 연구와 어문학적 연구가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전자보다 후자가 보다 활발하게 전개된 사실도 알 수 있는데, 이는 향가 때문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은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할 때도 신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편파성을 보였기 때문에 연구도 자연히 신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는 사실이다.

III. 종합적 연구의 새로운 방향과 방법

삼국유사에 대한 연구는 2000편을 상회하는 방대한 분량의 연구물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에 기왕의 연구 성과를 현 시점에서 총정리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일연의 인생체함과 불교사상과 역사관의 산물인 삼국유사의 안목과 논리에 충실하기보다는 삼국유사 자체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하고, 이같은 비판적 입장에서 삼국유사를 재조명하면, 삼국유사 이면에 매몰되거나 굴절되기 이전의 실체적 진실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이같은 관점과 시각을 먼저 정립하여 삼국유사의 편향성 내지 편중성을 교정해야 한다. 곧 일연이 고려의 정통성을 신라에서 찾은 연유로 자료가 신라에 편중되었기 때문에 백제와 고구려에 대해 의식적으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균형을 회복시켜야 한다. 또 불교사관에 의해 단군신화의 환인을 불교의 제석신으로 인식한 것처럼 불교가 전래한 삼국시대만이 아니라 그 이전의 역사까지도 불교적으로 재해석하고 윤색했기 때문에 도교까지 포함해서 巫敎에 대한 일연의 시각을 탈피해서 무교와 도교의 본연의 참모습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삼국유사의 자료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후대의 문헌, 금석문, 고고학, 인류학, 민속학, 민요, 방언, 고미술, 외국의 불교 등과 같은 2차적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발

굴하고 활용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방법이 문제가 되는데, 삼국유사 원전에 대한 문헌 고증을 바탕으로 하고, 현지답사도 아울러 실시할 뿐만 아니라, 인접 학문을 최대한으로 원용해야 한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통시적으로 비교하여 시야를 확대시켜야 하고, 물적 증거의 인멸 여부와 현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현장적 연구에 의해 문헌적 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자들이 학문 분야에 따른 독자적인 연구방법 이론에 의할 것이냐? 아니면 연구방법론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 가능하냐가 조율되어야겠다.

주지하다시피 삼국유사는 제목과는 다르게 내용이 삼국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시대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것인지도 문제가 되는데, 시대구분도 연구의 관점과 시각, 사관이나 연구 목적 등과 일정한 연관성을 띠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불교 전래 이전 - 불교 전래 이후 - 삼국유사 편찬기’나 ‘삼국 정립 이전 - 삼국 정립기 - 남북조(신라와 발해) 시대 - 후삼국 시대 - 삼국유사 편찬기’와 같이 시대를 구분할 수 있다.

삼국유사는 일연이라는 프리즘을 통과해서 고대·중세사회의 역사와 문화가 투영된 것이기 때문에 일연의 편찬 의도와 삼국유사의 문헌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삼국유사가 함유하고 있는 내용의 전체상이 파악되고, 이것이 다시 심층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개괄적인 접근에 의한 거시적 조망에 이어 미시적인 분석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 먼저 숲을 본 다음에 나무를 보자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들의 전공 영역의 벽을 허무는 학제적 논의를 통해 분할적 이해를 지양하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이해에 도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실시할 연구의 순서와 기술의 체제를 목차의 한 모형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I. 삼국유사 연구의 성과와 과제
- II. 삼국유사의 편찬 의도와 문헌적 성격
 1. 편찬 의도
 - 1) 일연의 생애와 사상
 - 2) 편찬 배경과 과정
 - 3) 내용과 체제
 - 4) 기술 태도와 서술 원리
 - 5) 사관
 2. 문헌적 성격

- 1) 史書
- 2) 民族誌
- 3) 국문학 자료집
- 4) 국어 자료집
- 5) 한문문체 자료집
- 6) 불교사(불교문화사)

III. 삼국유사를 통한 고대·중세 문화의 탐색

1. 역사
2. 불교
3. 언어
4. 풍속
5. 국문학
6. 한문학

IV. 삼국유사의 종합적 논의

1. 사회와 종교
2. 토착신앙과 불교
3. 사회와 문학
4. 종교와 예술
5. 문화와 국어
6. 국문학과 한문학

V. 결론

<참고문헌>

- 김열규·신동욱 편, 『삼국유사와 문예적 가치해명』, 새문사, 1982.
- 동북아세아연구회 편, 『삼국유사의 연구』, 중앙출판주식회사, 1982.
- 민족문화연구소 편, 『삼국유사연구(상)』, 영남대학교출판부, 1983.
- 백산자료원, 『삼국유사연구론선집(1)』, 1986.
- 변태섭, 『한국사통론』, 삼영사, 1986.
- 불교사학연구소 편, 『증보삼국유사연구논저목록』, 중앙승가대학, 1995.
- 신라문화선양회 편, 『삼국유사의 신연구』, 서경문화사, 1991.
- 신라문화선양회 편, 『삼국유사의 현장적 연구』, 서경문화사, 1992.

이기백, 『한국사신론』(개정판), 일조각, 1985.

중앙승가대학 편, 『일연과 삼국유사』(1~17권), 민족문화출판사, 1996.

진단학회 편, 『진단학보』 제36집, 1973.

최남선 편, 『신정 삼국유사』, 민중서관, 197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삼국유사의 종합적 검토』, 조은문화사, 1996.